

수출기업 99% ‘탄소 데이터’ 제출 압박…관리는 제각각

대한상의, 산단 탄소배출 관리 수요조사

66.3% 자체 시스템·42.4% 엑셀 의존…표준화 한계
구축비·전담인력 부족 발목…공용 플랫폼 지원 절실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수출기업 대부분이 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기업은 표준화된 관리체계 없이 자체 시스템이나 엑셀·수기 문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데이터 양식과 관리 기준이 달라 공급망 내 자료 교환 과정에서 오류와 중복 업무가 발생하는 데다 시스템 구축비와 전문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단지 탄소배출 관리(MRV) 플랫폼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9.3%가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향후 요구받을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고객사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기업이 76.0%에 달했고, 조만간 요구받을 예정이거나 관련 계획이 있다는 기업도 23.3%였다. 요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0.7%에 그쳤다.

협력사에 탄소배출 자료를 요구하는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응답 기업의 55.0%가 이미 협력사에 탄소데이터를 요청한 경험이 있었으며, 35.3%는 향후 요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를 합하면 90.3%에 달한다.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배출 데이터가 공급망 거래 유지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영향이다.

문제는 기업의 데이터 관리 역량이 강화되는 규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소데이터 관리 방식을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 응답 기업의 66.3%는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사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마다 관리 기준과 서식이 달라 공급망 전체에서 자료를 연계하거나 교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엑셀이나 수기 문서로 탄소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응답도 42.4%에 달했다. 고객사가 제공한 개별 서식을 이용하는 기업은 38.8%, 컨설팅업체가 제공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은 24.3%였다. 업종별 공용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양식으로 재가공해 입력하는 이른바 ‘이중수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기업마다 산정 기준과 제출 서식이 달라 데이터 산출과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행정업무가 늘어나는 문제도 나타났다.

수출규제와 고객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용 플랫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인력 문제가 도입을 가로막고 있었다.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비용 부담’이 64.0%로 가장 높았다. ‘전담인력 및 시간 부족’도 62.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 규제와 고객사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 39.3%, 데이터 확보·품질 문제 34.3%, 보안과 기밀유출 우려 24.3%, 사내 우선순위가 낮다는 응답 7.3% 등의 순이었다. 향후 3년간 탄소데이터 관리에 들어갈 비용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예상한 기업은 44.7%였다.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도 43.3%에 달했다. 1000만원 미만을 예상한 기업은 12.0%에 그쳐 초기 재정 부담이 플랫폼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표준화된 서식과 템플릿 제공을 꼽았다. 이 같은 응답은 64.0%로 가장 많았고, 데이터 교환을 위한 협업 플랫폼 제공이 53.7%로 뒤를 이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4.0%, 데이터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32.0%, 보안성을 갖춘 플랫폼 제공은 21.3%였다.

플랫폼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영업 기밀 등 기업 데이터 보호와 국제표준·해외기준 간 상호 호환성이 각각 54.0%로 가장 높았다. 해외 제출용 신뢰성 입증 50.0%, 기업 간 상호 운용성 확보 39.3%, 플랫폼 이용 편의성 제고 35.0%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송대용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진도모피 ‘브랜드 워크’ 롯데백화점 광주점 진도모피 매장에서 한 여름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 모피를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 워크’ 행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진도모피에서는 밍크 베스트, 밍크 재킷 등 다양한 모피 제품을 행사기간 중 50~70% 할인된 가격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구매 금액대별로 밍크세탁권, 캐시미어 소품세트, 머플러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제조기업 10곳 중 8곳 “피지컬 AI 도입”

한국경총 조사…생산성 31.9% 향상 기대
일자리 축소 전망…기술 불안 등 부담도

국내 주요 제조기업 10곳 중 8곳 이상 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지컬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평균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자리 감소와 기술적 불안정성, 투자 대비 수익의 불확실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사자 500인 이상 제조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지컬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0%가 피지컬 AI를 현재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47.0%

는 피지컬 AI를 현재 제조 공정에 사용하거나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정이나 부서에 도입한 기업이 43.0%였으며, 모든 공정 또는 부서에 도입한 기업은 4.0%였다.

현재 도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7.0%,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은 16.0%였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도입 의향도 높았다. 종사자 10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피지컬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인 기업은 88.5%로,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의 68.2%보다 20.3%p 높았다.

현재 피지컬 AI를 도입한 기업은 무인운반차와 자율이동로봇을 포함한 ‘AGV·AMR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복수응답 기준 AGV·AMR형의 활용 비율은 63.8%였으며 자율주행

차형 31.9%, 휴머노이드형 29.8%, 드론형 4.3% 순이었다.

기업들은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가장 큰 효과로 생산성과 실적 향상을 꼽았다. 피지컬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이 있는 84개 기업 가운데 45.2%가 생산성 및 실적 향상을 기대했다.

구인난 등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2%,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2.6%였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피지컬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평균 31.9%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피지컬 AI 확산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4.5%였다.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3.6%에 그쳤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SKT, 3G 시대 막 내린다…신규 가입 중단

23년 역사 뒤로하고 LTE·5G 전환…기존 이용자 보호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를 이끌었던 3G 서비스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사실상 퇴장 수순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이 23년간 운영해온 3G 서비스의 단계적 종료를 추진하면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들의 LTE·5G 전환 지원에 나섰다.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3G 단말과 HD Voice를 지원하지 않는 LTE 단말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유심기변 포함)을 중단한다.

3G 가입자와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3G 단말과 네트워크 장비가 노후화되고, 통신 서비스 환경이 LTE와 5G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된 데 따른 조치다.

SKT는 이번 신규 가입 중단을 시작으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비스 종료 승인을 신청하고 단계적으로 3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 보호책을 대폭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존 3G 단말을 사용하거나 HD Voice를 지원하지 않는 LTE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LTE·5G로 전환할 경우 기존 결합할인과 장기고객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사업주 : 한경민
-발전소명 : 한울그린에너지태양광발전소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활시 구례군 광의면 대천리 68-1, 64-63
-면적 : 36,735.1㎡
2. 태양광발전설비의 내용
-설비용량 : 2899.92kW
-사업개시일 : 2028.01
-운행기간 : 2028.01~2048.01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기간 : 공고일로부터7일간
-방법 :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팩스,우편등으로 통해 제출
4. 의견제출 장소 및 연락처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남구 포송로 527
-연락처 : 062-381-5040
-팩스 : 062-381-5041
-회사명 : 네오테크(주)
-이메일 : neotechsolar@naver.com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 명칭 : 사내호주민태양광발전소-27호
2. 발전소 위치
- 전남 해남군 복일면 용일리 1505 일원
- 전남 해남군 복일면 내동리 1217 일원
3. 발전소 면적 : 해남군 사내호 960,000㎡(290,400평)
4.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용량 : 80MW (2,983.5kW x 26개소 / 2,426.58kW x 1개소)
- 사업개시 예정일 : 2030년 1월
- 사업운행기간 : 2030년 1월 ~ 2050년1월 (20년간)
5.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사내호주민태양광발전1호주식회사-16호주식회사
6.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8월 28일까지 (7일간)
7. 의견제출 방법 : 전화 (041-583-7775), FAX (041-583-7776)

E-mail (hkenergy@naver.com)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사업주 : (유)제이전바니
-대표이사 : 장봉표
-발전소명 : 제이전바니태양광발전소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산 39,39-3,39-8,39-9
-면적 : 102,842㎡
2. 태양광발전설비의 내용
-설비용량 : 2899.92kW
-사업개시일 : 2028.01
-운행기간 : 2028.01~2048.01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기간 : 공고일로부터7일간
-방법 :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팩스,우편등으로 통해 제출
4. 의견제출 장소 및 연락처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남구 포송로 527
-연락처 : 062-381-5040
-팩스 : 062-381-5041
-회사명 : 네오테크(주)
-이메일 : neotechsolar@naver.com

세상과 함께,문화와 함께

전라도人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YouTube | **광남일보** iTV

광주전남의 생생한 뉴스와 현장 이야기

주목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광남일보 iTV와 함께하세요!

LATEST NEWS

전기로 최대 10%!...호남 반도체 산단 '연 7000억' 아진다?
39세 이하라면 주목! 2억 빌려도 월 85만원...청년 주거지원 확 바뀐다
전남광주 기술자가 사라진다...5년 새 1,380명 감소

대표문의 : **062)370-7070**